

# 「원천강본풀이」의 신화적 성격과 현대적 변용 양상

김 유 진\*

## <목차>

- I. 머리말
- II. 원천강본풀이의 신화적 성격
- III. 원천강본풀이의 동화화에 대한 고찰
- IV. 원천강본풀이의 영화화에 대한 고찰
- V. 맺음말

## I. 머리말

제주도 무속 신화인 원천강(袁天綱)본풀이는 다양한 예술 장르에서 현대적 변용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신화 중 하나다.<sup>1)</sup> 특히 이 신화는 서사

\* 인하대, aravis@hanmail.net

1) 「원천강 본풀이」를 변용한 아동문학 작품으로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우리 신화』(서정오, 현암사, 2003), 『계절을 여는 아이, 오늘이』(초록인, 교학사, 2005), 『오늘이』(서정오 글, 조수진 그림, 봄봄, 2007), 『오늘이』(허난희 글, 정승환 그림, 키움, 2008), 『사계절의 신 오늘이』(유영소, 한겨레아이들, 2009) 등이 있다. 한편 문학 이외의 다른 예술 분야 작품으로는 애니메이션 『오늘이』(이성강 감독, 2003), 어린이 음악극 『춘하추동 오늘이』(극단 신화세상, 2004), 『오늘이』(조태준 극본, 이병훈 연출, 2009), 창작발레 『시간의 꽃, 오늘』(김순정 발레단, 2008) 등이 대표적이다. 이중 애니메이션 『오늘이』는 자그레브 애니메이션 영화제 특별상(2004), 동아·LG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단편 부문 대상(2004)을 수상했고 안시 페스티벌, 브라질 국제 애니메이션 영화제, 대만 금마장 영화제 등에 초청됐다. 또한 이병훈이 연출한 어린이 음악극 『오늘이』는 일본 오키나와에서 열린 2009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구조가 단순하고 동화적인 신비함<sup>2)</sup>을 지니고 있어 대개의 경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문학 작품과 연극으로 재창조되는 점이 특징이다. 본고에서는 원천강본풀이를 면밀하게 고찰해봄으로써 이 신화의 본래적 성격을 밝히고 이것이 현대적으로 변용된 바를 동화와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현대적 변용이 활발한 것에 비해 지금까지 원천강본풀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그 까닭은 우선 제주도의 특수본풀이<sup>3)</sup> 중 하나로 분류된 이 본풀이를 채록한 각편이 단 두 편<sup>4)</sup>이며 현재는 무속 제의에서 연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두 개의 각편은 원천강이라는 제목만 같을 뿐 내용이 전혀 달라 연구자들 간에 과연 이것이 진짜 본풀이로 불리웠는지 하는 것에서부터 이견이 있어 왔다. 유일하게 채록된 두 각편이 전연 다른 내용이라는 난제는 원천강본풀이의 근원에 대해 더욱 엄정한 고증을 요청하고 있지만 이러한 이유로 오히려 연구자들의 관심에서 소외되었다.

제주도본풀이를 줄곧 연구해온 현용준의 경우 원천강본풀이가 현재 무속 제의에서 불려지는 것을 볼 수 없으며 대상 신의 직능도 알 수가 없다<sup>5)</sup>

(ASSITEJ) 페스티벌 공식 초청작으로 참가하는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예술적 성취를 보이고 있다.

- 2) 신동훈은 이 신화가 “한 폭의 하늘 동화같은 신화”이며 “환상과 신비의 분위기를 이처럼 아련하게 살려낸 신화와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한다.(신동훈, 『살아있는 우리 신화』, 한겨레신문사, 2004, 122쪽)
- 3) 제주도 곳에서는 신화 구송을 ‘본의 품다’라는 뜻의 본풀이라고 한다. 본풀이는 신의 근원, 내력에 대한 이야기라는 뜻으로 신화 자체를 일컫는 말이며 또한 신화를 노래하며 신에게 기원하는 형식의 의례 절차를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 본풀이는 의례적 연행의 중심 상징이다. 신화의 줄거리가 의례 절차와 대응되고 신화 구송이 전체 의례 과정의 중심 부분에 위치하기 때문이다.(김승혜·김성례, 『그리스도교와 무교』, 바오로딸, 1998, 154쪽) 일반적으로 제주도의 본풀이는 일반신본풀이, 당신본풀이, 조상신본풀이로 분류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제의와 신격을 알 수 없는 10여편의 본풀이를 특수본풀이라고 한다.
- 4) 하나는 1930-33년 박봉춘이 구연하고 아카마쯔 지쵸(赤松智城)와 아키바 다카시(秋葉隆)가 채록한 『조선 무속의 연구』 상권의 제주도신가(濟州道神歌)편 제9 원천강본풀이(袁天綱本解)이고 다른 하나는 1960년 초반 조술생이 구연하고 진성기가 채록해 『남국의 무가』와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에 실린 원천강본이다. 전자는 박봉춘본으로 후자는 조술생본으로 지칭한다.
- 5) 현용준, 『제주도 무속신화의 계상』,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21쪽.

며 이를 본풀이로 보지 않는 입장이다. 나아가 채록된 두 각편의 내용이 전혀 다른 것을 두고 각각의 설화<sup>6)</sup>를 같은 이름으로 채록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가설까지 내비치고 있다.<sup>7)</sup> 반면 이수자는 두 각편의 내용을 비교한 뒤 박봉춘본이 이 신화의 원래적 자료이고 조술생본은 원천강본풀이라는 신화명 아래 형성된 신화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박봉춘본의 서사구조는 신화 공통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신의 공업과 신직(神職)이 일치하므로 신화가 내포해야 할 일반적인 요건을 다 갖춘 신화로 볼 수 있는 반면 조술생본은 신들의 공업담과 신직이 나타나지 않으며 서사구조도 일화적일 뿐이라는 설명이다.<sup>8)</sup> 한편 강권용은 두 본이 모두 심방의 점사적 기능이 부각된 세속화된 심방들의 신화라고 본다.<sup>9)</sup>

본고는 박봉춘본만을 원천강본풀이의 원래적 자료로 확인한 이수자의 견해에 근거해 박봉춘본을 원천강본풀이의 원 자료로 삼고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조술생본 채록에 대한 신빙성에 의문을 가지는 이유는 이야기 자체의 내적 요소가 신화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 외에도 제주도 제일의 무가계의 21대째인 박봉춘 심방에 비해 조술생 심방은 당대에 입무한 심방<sup>10)</sup>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sup>11)</sup> 그러나 현용준의 견해대로 두 각편 모두를 민담으

6) 보통 설화란 민담, 전설, 신화를 포괄하는 상위개념이나 여기서 현용준은 신화를 제외한 협의의 개념으로 설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7) 현용준,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2005, 29쪽.

8) 이수자, 「무속신화 원천강본풀이의 신화적 의미와 위상」, 『남도 민속학의 진전』, 태학사, 1998, 788~798쪽.

9) 강권용, 「제주도 <특수본풀이> 연구-원천강본풀이, 세민황제본풀이, 허공에기본풀이를 중심으로」, 경기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1.

10) 강권용은 위의 논문에서 두 심방에 대한 무가계 조사, 입무 배경, 활동 양상 등의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그는 조술생 구연본에 대해 많은 의심을 가질 수 있긴 하나 무업의 습득은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충분히 익힐 수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주장했다. 그러나 심방 사이에서 전수자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특히 신화, 신의 내력에 관한 전수가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볼 때 이는 그리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11) 원천강본풀이를 현대적으로 변용한 작품 모두는 박봉춘본에서 비롯한 것이므로 본고의 연구 목적과도 상응한다.

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박봉춘본은 이와 매우 유사한 서사구조를 지닌 민담 유형인 ‘구복여행담’과 비교해 볼 때 신화적 요소가 확연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원천강본풀이의 채록본이 단 한 편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러한 연구 상황의 한계에 따라 이와 비슷한 서사구조를 지닌 ‘구복여행담’과의 비교를 통해 원천강본풀이의 신화적 의미를 밝혀내고자 한다. 유사한 서사구조를 지닌 민담과 비교함으로써 원천강본풀이의 신화적 위상이 상대적으로 드러날 것이라 기대한다. 종래의 구복여행담과의 비교 연구<sup>12)</sup>에서는 구조상의 유사성이 확인되었을 뿐 둘의 차이와 원천강본풀이의 신화적 의미가 명백히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이를 좀 더 분명하게 부각시키는데 주안을 두고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나아가 ‘구복여행담’과의 비교를 통해 드러난 원천강본풀이의 서사구조의 특징과 신화적 의미가 전래동화와 그림책, 애니메이션에서 현대적으로 변용된 양상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 II. 원천강본풀이의 신화적 성격

### 1. 원천강본풀이와 구복여행담의 서사구조 비교

제주도 무속 신화인 원천강본풀이의 서사 구조는 민담인 ‘구복여행담’과 매우 비슷하다. 구복여행담은 복 없는 청년이 고행 끝에 이계에 가서 복을 타다 행복하게 살았다는 내용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담이자 세계적인 광포 설화의 하나다.<sup>13)</sup> 두 신화와 민담은 서사구조가 유사해 둘의 연관성에 대한 관심이 있어왔다. 이수자는 신화인 원천강본풀이가 민담인 구복여행

12) 김왕식, 「<구복여행담> 연구 -공간이동 상황과 서사무가와의 대비를 중심으로-」, 동국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8. 김남정, 「<구복여행> 설화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1998.

13) 황인덕, 「한·중·인 ‘구복여행’ 설화의 비교적 고찰」, 『비교민속학』 31집, 2006, 243쪽.

답을 형성한 모태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sup>14)</sup>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구복여행담이 한국 광포설화이자 세계 광포설화이고 인도 기원설이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점<sup>15)</sup>으로 미루어 볼 때 오히려 구복여행담이 원천강본풀이의 모태가 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된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선후 관계의 맥락은 일단 논외로 삼고, 원천강본풀이와 구복여행담의 서사구조를 병렬적으로 비교한 뒤 원천강본풀이의 서사가 구복여행담에 비해 어떠한 신화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밝히도록 하겠다. 먼저 구복여행담의 일반적인 서사구조와 특징을 살펴본 후 원천강본풀이의 서사를 요약, 정리해 비교한다.

#### 1) 구복여행담의 서사구조

구복여행담의 서사구조는 이 민담 유형에 대해 독보적인 성과를 지닌 조희웅의 연구와 구복여행담의 유형 구조를 정리한 배도식의 최근 연구를 종합해 재구성해 볼 수 있다. 조희웅은 구복여행담의 24개 각편을 통해 이 유형담의 기본형을 추출했다.<sup>16)</sup> 구복여행담의 각편은 현재 총 49개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sup>17)</sup> 가장 많은 각편으로 기본형을 추출한 그의 연구는 본고의 논의에 적용하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한편 배도식은 13개 각편을 기본 자료로 하고 36개 각편을 보조 자료로 해서 구복여행담의 유형 구조와 변이 양상을 추출했다. 이 둘을 종합해 구복여행담의 기본 구조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 14) 이수자, 「무속신화 원천강본풀이의 신화적 의미와 위상」, 『남도 민속학의 진전』, 태학사, 1998, 814-817쪽.
  - 15) 황인덕, 「한·중·인 ‘구복여행’ 설화의 비교적 고찰」, 『비교민속학』 31집, 2006, 244쪽. 조희웅, 「구복여행」, 『한국설화의 원형적 연구』, 한국연구원, 1983, 136~137쪽 참조.
  - 16) 조희웅, 「구복여행」, 『한국설화의 원형적 연구』, 한국연구원, 1983. 「구복여행」, 『한국설화의 유형』, 일조각, 1996. 「구복여행설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3권, 정신문화연구원, 1991.
  - 17) 배도식, 「구복여행 설화의 구조와 의미」, 『국어국문학』 22권, 2003, 96쪽.

- ① 결핍 : 가난한 총각이 살다.
- ② 구복여행 출발 : 복을 타러 떠나다. <하느님(옥황상제)께, 부처님께(서천서역국)>
- ③ 과제 : 도중에 만난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고민을 알아달라는 부탁을 받는다.
  - a. 과부(처녀)가 해로할 배우자를 만나려면
  - b. 나무가 마르는 이유, 또는 꽃(열매)이 맺히지 않는 이유
  - c. 이무기(웅)가 승천하지 못하는 이유
- ④ 장애 돌파 : 이무기(웅)의 도움으로 큰 물을 건넌다.
- ⑤ 과제 해결 : 옥황상제(혹은 부처님)이 답을 가르쳐 줌.
  - ㄱ. 주인공 자신의 복에 대한 해답 - 복이 그것밖에 안되니 그냥 가라/이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 ㄴ. 부탁받은 질문에 대한 해답 -
    - a. 여의주 가진 남자와 결혼 하라/처음 만난 남자와 결혼하라.
    - b. 나무(꽃) 밑에 금은보화가 묻혀 있어 그렇다.
    - c. 욕심으로 여의주를 많이 가져서이니 여의주(야광주)를 하나만 가져라.
- ⑥ 결핍의 제거 : 총각이 나무 밑의 금은보화와 여의주로 부자가 된다.
- ⑦ 결혼 : 총각이 과부(처녀)와 결혼한다.
- ⑧ 결과 : 총각이 복을 타 와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

## 2) 원천강본풀이의 서사구조

원천강본풀이의 서사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다. 진행될 논의를 위해 상세히 기술한다.

- ① 적막한 들판에 한 여자아이가 나타난다. 사람들이 여자 아이에게 이름과 나이를 물으니 자기는 강림들에서 솟아났을 뿐 아무 것도 모르고 학이 날아 와 날개로 덮어주고 야광주를 물려주어 살았다고 한다. 사람들이 오늘을 나온 날로 하라 하며 이름을 ‘오늘이’라고 지어준다.
- ② 오늘이가 여기저기 떠돌다가 박이왕의 어머니 백씨부인에게 가니 그가 오늘이의 부모국이 원천강임을 가르쳐 준다. 오늘이가 원천강 가는 법을

물으니 백사가의 별충당에 가면 글 읽는 도령이 있는데 그에게 물어보라고 한다.

- ③ 오늘이가 별충당에 가서 장상이란 도령에게 길을 묻는다. 장상은 가다 보면 연화꽃이 있는데 그 곳의 연꽃나무에게 물어 보라고 가르쳐준다. 그러면서 원천강에 가면 왜 자신이 밤낮 글을 읽어야 하고 성 밖으로 외출하지 못하는지 이유를 물어봐 달라고 부탁한다.
- ④ 오늘이가 연꽃나무를 찾아가 길을 묻는다. 연꽃나무는 삼월이 되면 꽃이 피는데 상가지에만 피고 다른 가지에는 피지 않으니 그 팔자를 물어봐 달라고 하면서 원천강 가는 길은 청수아당가의 천하대사(天下大蛇)에게 물어보라고 가르쳐준다.
- ⑤ 오늘이가 청수아당가에 이르러 대사에게 길을 묻는다. 대사는 야광주를 셋이나 물어도 용이 못 되는 이유를 물어봐 달라고 부탁하며 오늘이를 등에 태우고 헤엄을 쳐서 청수아당을 넘어준다. 원천강 가는 길은 매일이라는 사람에게 물어보라고 가르쳐준다.
- ⑥ 오늘이가 매일에게 길을 묻는다. 매일은 자신이 항상 글만 읽고 있는 팔자를 물어달라고 부탁하면서 울고 있는 시녀 궁녀에게 물어보면 알 것이라고 한다.
- ⑦ 오늘이가 시녀 궁녀에게 우는 이유를 묻는다. 그들은 옥황의 시녀였고 죄를 지어 물을 다 퍼내야 옥황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 바가지에 구멍이 뚫려 있어 그렇다고 했다. 오늘이가 구멍을 막고 옥황상제에게 축도한 후 물을 푸니 물이 순식간에 말랐다. 시녀들은 기뻐하며 원천강 문 앞까지 동행해준다.
- ⑧ 오늘이가 원천강에 도착하나 성의 문지기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오늘이가 부모를 그리며 신세를 한탄하고 팔자에 관해 받은 부탁을 어찌할까 우니까 문지기가 동정하여 부모에게 가서 알리니 부모는 오늘이를 안으

로 들어오게 한다.

- ⑨ 오늘이가 지난 일들을 모두 말하니 부모는 칭찬하며 자기 자식이 분명하다고 한다. 부모는 오늘이를 낳던 날 옥황상제가 불러 원천강을 지키라 하여 있게 됐으나 항상 오늘이를 보호하고 있었다고 하면서 원천강을 구경시켜 준다. 만리장성처럼 둘러싸인 문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춘하추동 사시절이 모두 있다.
- ⑩ 오늘이가 되돌아가고자 하며 오는 길에 들었던 부탁을 말하니 부모는, 장상이와 매일이는 부부가 되면 만년영화를 누릴 것이고, 연화는 웃가지의 꽃을 따서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주면 다른 가지도 만발할 것이며 대사는 야광주 두 개를 버리고 하나만 가지면 용이 될 수 있다 하고, 오늘이는 야광주와 연화를 가지면 신녀가 될 것이라 알려준다.
- ⑪ 오늘이가 돌아오는 길에 매일을 만나 알려주니 장상이 있는 곳을 모른다고 해서 같이 간다.
- ⑫ 오늘이가 대사에게 용이 되는 법을 알려주니 야광주 두 개를 오늘이에게 주고 승천한다.
- ⑬ 오늘이가 연꽃나무에게도 해결책을 알려주니 연꽃나무는 웃가지를 꺾어서 오늘이에게 준다. 그러자 가지마다 꽃이 핀다.
- ⑭ 오늘이가 매일과 장상을 만나니 매일과 장상이 부부가 되어 만년영화를 누린다.
- ⑮ 오늘이가 백씨부인을 만나서 야광주 하나를 주고 옥황의 신녀가 되었다.
- ⑯ 오늘이는 인간 세상에 강림해서 절마다 다니며 원천강을 등사하게 하였다.

## 2. 서사상의 특징으로 본 원천강본풀이의 신화적 성격

지금까지 정리해본 바 구복여행담과 원천강본풀이는 탐색여행의 서사



구조를 지니는 점에서 전체적인 이야기의 구조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복여행담과 원천강본풀이는 서사의 세부 구조와 주제에 있어 그 차이가 확연하다.

무엇보다 먼저 주인공 인물의 성격과 그가 처한 상황이 다르다. 구복여행담의 주인공은 미혼 남자이고 그는 가난하기 때문에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복을 구하러 하늘나라 혹은 서천서역국으로 떠난다. 반면 오늘이는 여자 아이이며 부모를 찾기 위해 원천강으로 향한다. 대부분 탐색담의 주인공은 남성이지만 오늘이는 여성이라는 점, 그리고 복을 타기 위한 이동이 아니라 자신의 근본을 찾아가는 여행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즉 구복여행담은 실물 탐색인데 반해 원천강본풀이는 가족(부모), 자아 탐색이다.<sup>18)</sup> 또한 오늘이는 구체적인 출신성분이 서사 초반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강님들에서 솟아났고 학이 날개를 깎아주고 야광주를 물어주었다는 점<sup>19)</sup>에서 태생부터 신이성을 지닌다.

구복여행담과 원천강본풀이는 주인공이 탐색여행을 하는 와중에 다른 이들에게 고민의 해결을 부탁받는 서사의 전개 부분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구복여행담에서는 주인공이 복을 타러 가면서 대개 세 가지 문제를 만나는 데 시집을 못 가서 고민하는 여인, 식물의 생장이 이뤄지지 않아 고민하는 사람,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이다. 대부분의 각편에서는 세 가지 난제의 순서까지 일정한데, 이는 마지막에 이무기를 만나야만 주인공이 하늘나라 혹은 서천서역국으로 공간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원천강본

18) 조희웅은 탐색담에 등장하는 탐색의 대상은 크게 인물, 사물, 공간, 운명이며 그중 대표적인 탐색 유형에는 괴물, 가족, 약물, 실물 탐색이 있다고 분류한 바 있다.(조희웅, 『설화학 강요』, 집문사, 1989, 119~131쪽)

19) ‘강림들에서 솟아났다’는 것은 제주도 당신본풀이에서 남신들의 탄생이 지상용출(地上湧出)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한편 학이 보살피는 부분은 배경재본 바리공주 무가에서 바리공주가 동해바다에 버려졌을 때 ‘까막까지 날어 들어 한 날개는 깎아주고 한 날개는 덮혀주고’라고 하는 대목과도 유사하다.(강권용, 『제주도 특수본풀이 연구』, 27~28쪽)

풀이에서도 장상→연꽃→용과의 만남까지는 부탁받은 세 가지 난제의 내용과 순서가 구복여행담의 서사구조와 동일하다. 그런데 원천강본풀이에서는 용이 오늘이를 이계로 건너준 후 바로 원천강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매일리와 옥황신녀를 만나는 과정이 더 있다.

유사한 서사구조를 지닌 구복여행담에는 없는 이러한 서사가 원천강본풀이에 나타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까닭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원천강이 옥황신녀의 도움을 한 번 더 받아야 갈 수 있는, 하늘나라나 서천서역국보다 더 먼 이계의 공간으로 상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오늘이의 탐색과 구복여행의 탐색은 여행의 최종 목적지인 공간이 다르다는 점에서 여행의 의미 역시 다를 수 있다. 둘째, 구복여행담에서 주인공은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을 물었던 처녀와 결혼하지만 원천강본풀이에서 오늘이를 신녀로 만들면서도 결혼 모티프<sup>20)</sup>를 이루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 두 인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일의 존재가 요청된다. 셋째, 평범한 사람이 아닌 옥황신녀를 등장시켜 그가 못하는 일을 오늘이가 해냈다는 사실을 말함으로써 오늘이의 신이성을 더욱 드러내며 그가 신직을 받기 위한 사전 관문을 치루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으로 미루어볼 때 구복여행 과정에서 주인공이 접하는 세 가지 문제에 더해 오늘이가 거치게 되는 과정은 그의 신직을 드러내기 위한 서사적인 장치로 해석할 수 있다. 오늘이는 구복여행담의 주인공보다 더 신이한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고 옥황신녀보다 더 영험한 능력을 지닌 존재인 것이다. 또한 구복여행의 주인공이 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람끼리의 만남을 통해 문제를 부탁받고 이를 해결해 주는데 비해<sup>21)</sup> 오늘이가 탐색여행의 과정에서

20) 진은진은 여성탐색담 유형의 서사무가인 삼공본풀이, 세경본풀이, 바리데기에서 여성 주인공의 ‘자아 찾기’가 ‘남편 찾기’와 긴밀한 연관을 지닌다고 주장했다.(진은진, 『여성탐색담의 서사적 전통 연구』, 보고서, 2008) 이에 반해 원천강본풀이에서 주인공의 ‘남편 찾기’를 볼 수 없는 점은 이례적이다.

21) 이러한 양상은 4가지 질문으로 구성된 변이형에서도 마찬가지다.

연꽃, 이계의 매일이, 옥황신녀 등 천, 지, 인의 여러 존재들과 만나는 점은 오늘날의 신이성과 아울러 천지인의 합일을 매개하는 무(巫)의 역할을 드러내며 무속 신화적인 면모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구복여행담과 원천강본풀이의 근원적인 차이점은 서사의 표층 구조는 유사할지언정 각기 다른 이야기의 주제가 서사의 심층에 자리하면서 다른 의미를 이끌어낸다는 점에 있다. 구복여행담의 근저에는 ‘福’, 특히 ‘富’의<sup>22)</sup> 모티프가 자리하는 반면 원천강본풀이에는 ‘복’의 모티프가 철저하게 삭제됐다.

구복여행담에서 주인공 남자의 결혼 상대가 ‘부잣집’ 처녀나 과부라는 점은 이 민담이 얼마나 집요하게 ‘부’의 획득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증명해준다.<sup>23)</sup> 한편 식물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난제는 뿌리에 금항아리가 묻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대답, 해결되고 결국 금항아리는 가난한 주인공을 부자로 만들어준다. 하지만 원천강본풀이에서는 동일한 난제에 대해 상가지에 홀로 핀 꽃을 꺾어야 전체가 꽃을 피울 것이라고 답해진다.<sup>24)</sup> 이는 욕심을 버리고 순리에 따라야 한다<sup>25)</sup>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에 응답해 꺾

22) 한국인의 복에 관한 인식은 壽, 富, 貴, 多男子라는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정재민, 「차복 설화의 구조와 복에 관한 인식」, 『구비문학연구』 4집, 1997, 183쪽에서 재인용)

23) 물론 구복여행담에서도 이무기가 여러 개의 여의주를 버리고 하나만을 가져야 승천할 수 있다며 욕심을 버릴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는 부자가 나무 뿌리에 묻힌 금항아리를 나누어주듯 가진 자 입장에서 나누라는 것이지, 가난한 주인공 총각으로 이루어지는 전체 서사의 주제는 ‘부’의 추구이다.

24) 김왕식은 논문 「<구복여행담> 연구 - 공간이동 상황과 서사무가와의 대비를 중심으로-」에서 “구복여행담이 인간의 일상적인 삶의 문제를 추구하기에 여행을 통해 인간에게 얻어지는 무엇인가가 관심거리라면 원천강본풀이는 신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신이 어떻게 신직을 부여받았는가 하는 점과 신이 이들 문제를 해결하게 어떤 기능을 보여주었는가에 관심이 집중됨을 알 수 있다”고 두 서사의 창작의도에 따른 차이를 지적했다. 하지만 이러한 의도상의 차이에 따라 각 서사가 어떻게 달리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보다 상세한 서사적인 분석은 결여되어 있다. 무엇보다 이 논문은 구복여행담을 중심으로 한 것이므로 두 서사의 대비를 통해 드러나는, 원천강본풀이의 신화성에 관한 해석은 찾아볼 수 없다.

25) 연꽃은 자기의 팔자를 이렇게 설명한다. “나는 겨울에는 움이 뿌리에 들고 정월이 나면 몸중에 들었다 이월이 되면 가지에 가고, 삼월이 나면 꽃이 되는데 상가지에만 피고 달은

인 연꽃<sup>26)</sup>은 오늘이를 신녀로 만들어준다. 구복여행담에서는 용이 주인공에게 건네는 여의주조차 신이성의 상징이 아닌 재물로 기능할 뿐이다. 많은 각편에서는 ‘여의주와 금은보화를 얻어 부자가 되었다’고 말하며 여의주를 금은보화와 동등하게 취급한다. 그러나 원천강본풀이의 야광주는 연꽃과 함께 오늘이를 신녀로 만들어주는데 필요불가결한, 신이한 물건<sup>27)</sup>이다.

이상으로 미루어볼 때 원천강본풀이의 서사의 핵심은 오늘이가 원천강으로 부모를 찾으러 떠나는 탐색여행을 통해 여러 존재들로부터 부여받은 과제를 해결하고 신녀가 되는데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구복여행담이 ‘부’로 대변되는 ‘복’의 추구라는, 지극히 현세적인 민중의 욕망이 만들어낸 민담인데 반해 원천강본풀이는 모든 존재의 운명과 순리에 대한 의미를 상기시키는 신화이다. 앞서 언급했듯 연꽃과 이무기는 순리를 따르지 않고 욕심을 부려 존재의 완전성을 추구하지 못한 상태였다. 하지만 자연의 순리에 맞지 않게 서둘러 핀 꽃을 꺾고 여러 개의 여의주를 버리고서야 비로소 완전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었다. 장상이와 매일에도 자연의 이치에 따라 음양의 조화를 이루는 부부 합일을 이루었으며 오늘이 역시 팔자(八字) 부탁을 들어주어야 했던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신녀가 될 수 있었다. 각자의 팔자를 인지하고 이에 따름으로써 새로운 존재로 변화했던 것이다.

---

가지에는 아니 피니 이 팔자를 물어줍소” 원래 연꽃의 개화시기는 7, 8월인데 이 연꽃은 3월(음력임을 감안한다 해도 4월)에 첫 꽃을 피우는 것은 자연의 순리에 어긋나는 일이다. 이러한 성급함과 욕심을 ‘꺾어야지만’ 모든 줄기에서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가르침을 알려 주고 있다.

- 26) 구복여행담에서는 열매가 열리지 않는 나무, 자라지 않는 나무, 피지 않는 꽃이라고 설명되고 연꽃이 등장하지는 않는다. 연꽃의 모티프는 상징적 의미를 지님과 동시에 원천강본풀이가 구복여행담과 대비되는 지점이다.
- 27) 무속에서 용의 여의주(如意珠)는 용의 정기라고 여기고 사람이 상상하는 구슬 중에서 효험과 권능이 가장 완벽한 것으로 알았다. 여의주는 우주적인 조화의 힘, 풍요의 힘, 그리고 남성적인 힘 등을 총괄적으로 상징한다. 한편 연꽃은 보리심(菩提心) 또는 조력자(助力者)를 상징한다. (『한국문화상징사전』, 두산동아, 1992.) 김환희는 제주도 무속신화에서 꽃과 구슬은 매우 중요한 제의적, 상징적 의미를 지니며 세계상징체계에서도 재생, 영생불멸, 완벽성 등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김환희, 『옛이야기의 발견』, 우리교육, 2007, 226~232쪽)

본풀이의 제목인 ‘원천강(袁天綱)’의 의미를 살펴볼 때 원천강본풀이의 신화적 성격은 더욱 분명해진다. 원천강은 본래 점복과 관련된 무속 경전이다.<sup>28)</sup> 원천강본풀이의 마지막 대목인 “절마다 덴기며, 원천강을 등사하게 하였다”<sup>29)</sup>는 오늘이의 신직이 운명, 점복, 팔자와 관련된 일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한편 오늘이가 부모를 찾아간 원천강이라는 이계의 공간은 “춘하추동 사시절이 모다 있는”<sup>30)</sup> 곳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둘은 ‘시간’이라는 매개항으로 연결될 수 있다.<sup>31)</sup> 사계절은 곧 시간의 흐름과 시간의 변화/영속성을 말하는 것이며 사주 팔자를 통한 점복은 결국 시간에 의해 결정되는 운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원천강본풀이는 운명, 팔자, 점복을 주관하는 오늘이의 신직에 관한 신화이며 나아가 시간과 순리에 관한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

구복여행담과의 비교에 있어 덧붙이자면, 제주도에서 채록된 구복여행담<sup>32)</sup>이 다른 지역의 구복여행담과 일정한 차이를 지니고 있으며 원천강본풀이와의 연관성을 고려해볼직하다는 사실이다. 이 이야기는 주인공이 자신에게 혼사를 질문했던 여인과 결혼하는 육지의 다른 각편들과는 달리 저승할망을 만나 문제를 해결하고 부자가 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만난 여인과 결혼한다. 이는 오늘이가 혼사 문제의 주인공과 결혼하지 않는 것과 상통

28) 초공본풀이, 세경본풀이에는 “원천강 사주역”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두 본풀이를 볼 때 원천강은 절이나 중과 관련 있으며, 팔괘나 주역과 같은 류의 어떤 것이며, 책이나 죽편 같은 것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일 수 있으며, ‘팔괘 운운’하는 것으로 보아 그 형성시기가 괘법에 있어 여덟 개의 괘가 존재하고 있을 때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초공본풀이나 세경본풀이에 원천강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강본풀이와 이들과 비슷한 시기를 형성시기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이수자, 「무속신화 원천강본풀이의 신화적 의미와 위상」, 806-809쪽.) 한편 조선왕조실록에는 “명과학(命課學, 운명이나 길흉 등에 관한 학문, 조선 때 음양과(陰陽科)의 초시(初試)의 시험과목 - 필자 각주)의 시취(試取) 책자인 <원천강(袁天綱)>”이라는 대목이 여러번 나온다.(조선왕조실록 영인본 1책 268면, 47책 54면)

29) 아카마쯔 지쵸(赤松智城)·아키바 다카시(秋葉隆), 『조선 무속의 연구』, 299쪽.

30) 아카마쯔 지쵸(赤松智城)·아키바 다카시(秋葉隆), 『조선 무속의 연구』, 298쪽.

31) 신동훈, 『살아있는 우리 신화』, 한겨레신문사, 2004, 123쪽.

32) 진성기, 「저승할망」, 『남국의 전설』, 일지사, 1974, 118~124쪽.

하는 대목이라 볼 수도 있다. 또한 주인공은 어떤 백발의 할머니에게 삼일 안에 죽을 팔자라는 말을 듣고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이 백발의 할머니는 원천강본풀이의 박이왕의 어머니 백씨부인<sup>33)</sup>과의 유사성을 떠올리게 한다. 또 죽을 팔자였던 주인공이 집으로 돌아와 홀어머니께 저승과일을 드려 젊어지게 하는 화소는 서양 민담의 화소와 유사한 동시에 이 이야기가 단지 ‘富’를 넘어 ‘壽’까지 희원했다는 점에서 다른 구복여행담과 차별성을 지닌다. 원천강본풀이의 근원적 성격을 이해하는데 있어 제주도에서 채록된 구복여행담과의 비교 연구가 필요하며 아울러 영향 관계의 근원을 밝히는 작업의 기초가 될 수 있음을 드러내주는 지점이라 하겠다.

### III. 원천강본풀이의 동화화에 대한 고찰

지금까지 구복여행담의 서사구조와 비교해 살펴본 바 원천강본풀이는 운명, 팔자, 점복 등에 관련한 오늘날의 신적 직능과 공업이 드러난 무속 신화임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원천강본풀이를 현대적으로 변용한 여러 예술 작품에서는 이러한 신화성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 이 장에서는 동화를 중심으로 원천강본풀이가 해석되고 변용된 양상을 살펴본다.

원천강본풀이를 동화화한 작품으로 대표적인 것은 『사계절의 신 오늘이』(유영소, 한겨레아이들, 2009)<sup>34)</sup>, 『계절을 여는 아이, 오늘이』(초록인, 교학사, 2005)<sup>35)</sup>, 그림책 『오늘이』(서정오 글, 조수진 그림, 봄봄, 2007)<sup>36)</sup>

33) 박이왕이나 백씨부인의 인물 배경에 대한 자료는 찾을 수가 없었다. 백씨부인은 오늘이에게 부모가 원천강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 여행을 떠나는 계기를 제공했으며 오늘이가 돌아와 야광주를 선사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인물임에 분명하나 인물 성격을 알 수 있을 만한 근거 자료가 없다.

34) 이하 한겨레판이라고 한다.

35) 이하 교학사판이라고 한다.

이다. 옛이야기의 변용 정도에 따라 단계를 구분한 서정오의 분류에 따르면<sup>37)</sup> 한겨레판과 그림책은 ‘다시 쓰기’, 교학사판은 ‘고쳐쓰기’로 나뉠 수 있는데 전체적인 서사 구조는 원래의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전자는 원래의 신화를 현대적인 언어로 고치고 어린이 독자의 수준을 고려해 서사에 대한 부연 설명을 첨가한 정도로 변용됐다. 후자 역시 전체 서사의 틀은 유지한 채 좀 더 다양한 에피소드를 덧붙이는 수준에서 변용됐다.

그러나 이들 세 작품은 결말 부분에 있어 본래의 신화와 큰 차이를 보인다. 원천강본풀이의 마지막 구절은 “오늘이는 (...) 옥황의 신녀로 화하였다. 이리한 오늘날은 인간에 강림해야 절마다 덴기며, 원천강을 등사하게 하였다”로 끝난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운명, 점복, 팔자와 관련된 오늘날의 신직을 나타내는 것으로 원천강본풀이가 지닌 신화적 성격을 핵심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다.

그런데 원천강본풀이를 동화화한 세 작품에서는 모두 이러한 신직과 관계된 내용이 삭제되어 있다. 그림책은 오늘이가 하늘나라 옥황궁에 올라가 선녀가 된 것으로 끝을 맺는다. 또 한겨레판은 옥황의 선녀가 되고 원천강으로 가서 부모님과 함께 살며 사계절을 돌보는 일을 맡은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교학사판에서는 옥황상제가 오늘이에게 원천강의 원리에 대해 공부하고 수련하면 신관이 될 것이라는 말을 내린다.

먼저 그림책의 결말은 ‘원천강’에 관련한 오늘날의 신직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옥황의 선녀라는, 특별하지 않은 신적 지위를 획득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는 점에서 원래의 신화와는 판이하다고 볼 수 있다. 원천강의 부모에게로 되돌아가는 한겨레판의 결말 역시 이 신화가 근본적으로 여정이 시

36) 이하 그림책이라고 한다.

37) 서정오는 다시 쓰기, 고쳐쓰기, 새로 쓰기로 본래 이야기의 변용 정도에 따른 단계를 구분했다. 다시 쓰기는 변용이 적은 것, 새로쓰기는 변용이 많은 것이다. (서정오, 『옛이야기 들려주기』, 보리, 1995)

작된 공간으로 돌아가는 회귀의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부모찾기에서 더 나아가 자아찾기, 자신의 존재의 근원을 찾는 여정이라는 특징에 상반되는 것이므로 본래의 의미를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관이 되기 위해 한 차례의 수련 과정을 더 거쳐야 한다는 교회사관의 결말은 원천강본풀이의 공업담을 모두 무화시키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여러 존재들의 팔자에 대한 해답을 알려준 뒤 신녀로 화한 오늘이의 서사를 서사 스스로가 마지막에 가서 부인하고 배반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이렇듯 원천강본풀이 신화의 핵심적이고 고유성이 짙은 운명, 팔자, 점복에 관한 내용을 세 작품 모두가 삭제하고 있는 까닭은 무속 신화에 대한 이해 부족 내지 무속적인 면에 대한 의도적인 거부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무속 신화를 현대 어린이들에게도 매력 있는 풍부한 이야기의 원천으로 여기고 이를 변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핵심인 무속적인 면모를 소홀히 하거나 삭제하는 양상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아울러 이는 무속 신화를 어린이 독자를 대상으로 동화화하는 작업에서 작가 개인의 동화관과 어린이관이 투영된 결과로도 풀이된다. 부모에게로 되돌아간 한겨레판의 경우가 그러하다. 원천강본풀이에 나타난 오늘이의 여정이 독창적인 점은 비록 그 계기는 부모찾기로 시작됐지만 부모와의 만남을 통해 자기 존재의 근원을 확인한 뒤 그 부모를 떠나 독립적인 존재를 획득한 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면모가 오히려 뒤바뀌었다. 어린이들이 주체적인 존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존재의 지평을 보여주는 일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종래에는 부모에게로 되돌아가게 해서 어린이 독자를 안심시키고자 했던 작가의 의도가 감지된다.

원천강본풀이의 무속 신화적인 면모에 대한 이해 부족은 다른 지점에서도 발견된다. 교회사관은 한겨레판과 그림책이 원래의 이야기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 독자들이 읽기 쉬운 형식과 문체로 ‘다시 쓰



기'한 것보다 좀 더 많은 변용을 거쳤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사항들은 무속 신화의 동화화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숙고하게 한다.

원천강본풀이를 '고쳐쓰기'한 교학사판의 가장 특징적인 점은 이 이야기에 삼신할머니, 조왕신, 강림차사, 도깨비 등 각종 신화와 민담의 주인공들이 전체 서사와의 긴밀한 계기나 의미 없이도 곳곳에 에피소드로 첨가된 것이다. 특히 결말 부분에서 오늘이가 죽어가는 백씨부인을 연꽃과 여의주로 살리는 장면은 바리공주 이야기에서 차용해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화를 재해석하고 현대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에서 여러 신화를 무분별하게 차용하는 일이 과연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법인지는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학사판은 원천강본풀이에서 '구슬'이 제의적, 상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강림들에서 학이 물어다 준 '야광주'로 인해 오늘이가 생을 부지했던 것을 '옥그릇'으로 바꿈으로써 야광주의 상징적 의미를 삭제시켰다. 끼니를 이어가는 밥그릇과 같은 의미에서 옥그릇으로 치환한 듯 여겨지나 야광주의 신화적, 상징적 의미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원천강으로 부모를 찾아 떠나기 전부터 나타나는 오늘이의 신이성을 꽃밭을 잘 가꾸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행동으로 그리고 있는데 이는 오늘이의 신격을 축소시키거나 변형시키는 것이다. 물론 원천강이 춘하추동 사시사철이 모두 있는 공간으로 묘사되어 있고 또 현대의 생태주의적 가치를 반영하려는 작가의 의도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이의 신적 직능이 타당한 이유 없이 변형된 점은 신화의 본래적 의미를 드러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IV. 원천강본풀이의 영화화에 대한 고찰

이 장에서는 원천강본풀이를 모태로 제작된 애니메이션 『오늘이』의 서사를 원래의 신화와 비교하며 이 작품이 원천강본풀이를 현대적으로 변형, 해석한 바를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오늘이』는 국내외 유명 영화제에 초청되어 호평을 받은 만큼 원 서사에서 변형된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신화가 오늘날에도 흡입력 있게 다가갈 수 있는 지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오늘이』의 서사는 원천강본풀이의 서사와 비교해 볼 때 상당부분 변형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38)</sup> 서사의 흐름에 따라 이를 비교해 살펴보자면 ‘계절의 향기와 바람이 시작되는’ 원천강에 오늘이라는 별거숭이 아이가 보라색 여의주, 학 ‘야야’와 살던 중 침입자들에게 납치당한다. 이 때 ‘야야’는 침입자들이 쏜 화살에 맞고 원천강은 얼어붙는다. 즉 원천강본풀이에서 원천강은 오늘이가 자신의 신직을 확인하는 탐색여행의 목적지가 되는 공간이자 결국에는 떠나야 할 곳인데 반해 『오늘이』에서 원천강은 행복한 삶의 원형을 간직한, 반드시 회귀해야 할 공간으로 기능한다. 탐색의 서사에서 원천강이 점유하는 부분이 전혀 다른 것이다.

풍랑을 만나 무사히 탈출한 오늘이는 원천강으로 돌아가기 위해 책만 읽는 매일이, 연꽃나무, 구름이를 차례로 만나고 이들은 구복여행담과 원천강본풀이에서처럼 자신의 고민을 물어달라고 하며 원천강 가는 길을 가르쳐 준다. 그런데 그들의 질문은 구복여행담에서처럼 자신의 복에 관련된 것이거나 원천강본풀이에서처럼 자신의 운명이나 팔자에 관련된 것이 아니다. 『오늘이』에서는 복과 운명을 갈구하는 전통적인 인간의 고민을 ‘행복’이라는 현대적 고민으로 치환시킨다. 매일리와 오늘이의 대화에서 이는 명백하게 제시된다.

38) 문학 작품은 아니지만 서정오의 분류에 따르자면 ‘새로 쓰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 난 아는게 많지. 지금까지 책을 사천오백칠만 팔백이십오 권이나 읽었는데. 그런데 아직도 구천사백칠십육만 사십칠 권이나 더 읽어야 돼.”

“왜 그걸 다 읽어야 되는데?”

“왜냐고? 행복이 뭔지 알고 싶어서. 하지만 그렇게 많은 책을 읽어도 행복이 뭔지 모르겠어!”

“난 원천강에서 행복했는데.”

(중략)

“행복이 뭔지 알게 되면 나한테 꼭 가르쳐 줘. 알았지?”<sup>39)</sup>

행복이 뭔지 알기 위해 책을 읽는 매일이, ‘난 너무 슬퍼’라고 우울한 목소리로 되풀이해 말하는 연꽃나무, 사막 한 가운데 떠 있는 구름 밑에서 비를 맞고 서 있는 구름이의 모습은 현대인의 자화상인 듯 제시되고 있다. 본래의 이야기인 원천강본풀이에서는 장상이와 매일이가 날마다 글을 읽는 ‘팔자’를 고민하고 연꽃이 단 하나의 꽃만 피우는 ‘팔자’를 한탄했다. 하지만 『오늘이』에 등장하는 존재들은 그와 똑같은 한계에 처한 자신의 모습에 대해 팔자나 운명을 궁금해 하는 대신 그러한 상황을 불행해 하거나 우울하고 고독하게 여긴다. 즉 이 작품은 원 자료인 민담과 신화의 구조를 차용하면서 주인공을 비롯한 조력자들의 존재적 고민을 현대적인 것으로 치환시키고 이야기의 주제를 새롭게 변모시킨 것을 알 수 있다.

애니메이션에서는 주인공 오늘이 역시 복을 구하러 떠난 총각이나 부모를 찾고 옥황의 신녀가 된 원천강본풀이의 오늘이와는 또 다른 인물로 기능한다. 오늘이가 돌아가야 할 원천강은 “별거숭이”로 “하루하루 행복한 날들”을 보내던 원형적인 행복의 공간이다. 주인공 오늘이에게도 원천강으로의 회귀는 다른 존재들과 마찬가지로 행복을 찾아 떠나는 길에 다름 아니다. 애니메이션에서 오늘이는 아기의 모습을 간직한, 아주 어린 소녀로 그려져 있

39) 애니메이션 『오늘이』는 그림책과 VCD를 함께 판매하는 형태인 ‘한국대표애니메이션 그림책’ 시리즈로 발간됐다. 위 대화는 그림책 『오늘이』(문공사, 2004)에서 인용했다.

어 이러한 사실을 더욱 부각시킨다.

뿐만 아니라 오늘이는 비록 주인공이긴 하나 서사의 진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인물이 되지 못한다. 구복여행담과 원천강본풀이에서는 주인공을 중심으로 이야기의 전개와 결말이 이루어지지만 『오늘이』에서 다른 존재들에게 질문의 답을 제시해주는 주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이무기이다. 이무기는 여러 개의 여의주를 가졌음에도 승천하지 못하는 존재다. 여의주를 더 가져야 승천할 수 있다고 믿는 이무기는 오늘이가 가진 보라색 여의주를 탐내며 이를 받는 조건으로 강을 건너 원천강으로 데려다준다. 하지만 다시 되돌아간 원천강은 얼음으로 뒤덮였고 ‘아아’는 얼음 속에 갇혀 있는 상태다. 오늘이는 이러한 광경에 눈물을 흘리고 그것에 감응한 오늘이의 보라색 여의주가 이무기 손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땅이 갈라진다. 그런데 갈라진 땅 사이로 오늘이가 떨어지고 이를 본 이무기는 잠시 고민한다. 오늘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두 손 가득 든 여의주를 버려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결국 여의주를 버리고 오늘이를 구했고 그제야 비로소 승천할 수 있게 된다.

존재의 물음을 ‘행복’으로 치환한 『오늘이』는 이기심과 욕심을 버리고 타자를 위해 눈물 흘리고 희생할 때 비로소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주제를 매우 명징하게 드러내고 있다. 구복여행담과 원천강본풀이에서 여러 개의 여의주를 가졌던 용은 주인공인 오늘이가 신령한 공간에서 구했던 해답에 따라 여의주를 버렸을 따름이지만 『오늘이』의 용은 자기 희생의 실천으로 스스로 그 해답을 찾고 다른 존재들까지 구할 수 있었다. 승천한 용은 불을 내뿜어 얼어붙었던 원천강을 회복했고 그러던 중 작은 불이 나자 이를 끄기 위해 구름이의 비구름을 채간다. 머리 위를 줄줄 따라다니는 구름 밑에서 늘 비를 맞던 구름이는 비로소 구름으로부터 벗어났고 사막에서 날아온 구름이가 연꽃을 꺾자 꽃봉오리들이 다투어 피어난다. 연꽃을 타고 매일이가 사는 성으로 날아간 구름이는 매일이에게 연꽃을 건네고 “연꽃을 받아 든 매일이

는 이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다고 말한다.

이렇듯 『오늘이』는 이야기의 주제를 ‘행복’이라는 현대에 걸맞는 코드로 치환시키고 자기 희생이 행복의 열쇠라는 사실을 전한다. 구복여행담과 원천강본풀이의 탐색담의 서사구조를 그대로 차용하여 주인공과 조력자 간의 ‘제로섬(zero-sum)’이 아닌 ‘윈윈(win-win)’으로서의 교환, 상생과 조화를 이루는 교환의 재미와 긴장감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이를 현대적인 주제로 변용시킨 것이다. 주인공을 비롯한 모든 존재자들을 구원한 건 서천서역 국이나 원천강이라는 이계의 공간에서 절대자에 의해 주어진 해답이 아니었다. 욕심을 버린 자기 희생이 해결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바로 이 지점은 전통적 인간관에서 벗어나 근대적 인간관, 즉 자기 자신이 존재의 근거이자 이유인 근대적 인식의 반영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애니메이션 『오늘이』는 신화와 근대적 인식이 만난 새로운 지점으로 보인다.

물론 이렇게 서사가 변형되면서 원천강본풀이의 무속 신화적인 면모나 오늘이의 신적 직능이 삭제된 채 이야기 자체만 남은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는 앞 장에서 원천강본풀이를 동화화한 작품들에 대해서는 신화적 면모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다는 잣대로 평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애니메이션 『오늘이』에는 그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관된 기준과 논리의 문제를 들어 반론이 제기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세 편의 동화들은 ‘다시 쓰기’, ‘고쳐 쓰기’의 수준의 변용이고 『오늘이』는 ‘새로 쓰기’ 단계라는 점에서 그 기준의 차이가 있다. 변용의 정도가 적은 단계에서는 최대한 신화적 본래적 의미를 살려야 하지만, 그 신화를 새로 쓰기 차원으로 재해석하고 많은 변용을 피하는데 있어서는 보다 그 기준이 자유로워야 하고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이』는 비록 원래 신화의 무속적인 면모는 삭제

되었을지언정 욕심을 버리고 순리에 따라야 한다는 신화의 핵심적 의미와, 야광주 등 다양한 신화적 상징을 깊이 있게 이해한 후 이를 현대적으로 새롭게 해석해냈으며 그 결과물이 또한 그 자체로도 뛰어난 예술적 완성도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신화를 현대적으로 변용하는 작업에 하나의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V. 맺음말

지금까지 원천강본풀이를 구복여행담과 비교해 신화적 의미를 살핀 후 이 이야기가 동화와 애니메이션에서 어떠한 형태로 변용되었는지를 알아보았다. 원천강본풀이는 구복여행담과 비슷한 서사 구조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동일한 서사 구조의 반복, 신화적 상징 첨가 등의 서사 장치로 인해 구복여행담과는 달리 오늘이의 신적 직능을 드러내기 위한 무속신화로서의 면모가 확연함을 알 수 있었다. 또 구복여행담의 주제인 ‘복’의 모티브가 삭제된 채 운명과 순리에 관한 신화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본고에서는 원천강본풀이를 변용하여 ‘다시 쓰기’, ‘고쳐 쓰기’한 여러 동화들을 고찰하고 본래의 신화적 의미가 삭제된 것을 살펴보았다. 또한 애니메이션 『오늘이』에서는 원래 이야기의 구조와 주제가 변화되어 현대인들에게 좀 더 흡입력 있게 다가갈 수 있는 방식으로 또 하나의 새로운 이야기가 창조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렇듯 무속 신화가 현대적으로 변용된 바를 고찰하는 작업은 오늘날 신화가 지니는 의미와 가치, 바람직한 변용 방안 등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신화는 현대의 디지털 환경, 영상매체의 발전과 판타지 문화의 성장 등과 맞물려 오히려 가장 현대적인 문화 영역

에서 새롭게 재생하고 있다. 소설, 영화, 드라마,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에서 신화에 대한 수요와 관심은 나날이 증대하고 있는 추세다. 문화 콘텐츠의 보고로 신화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신화의 상징 세계야말로 문화적 창조력의 원천인 셈이다.<sup>40)</sup>

그런데 신화가 가장 새로운 것을 만드는 가능성이 되고 인류의 근원적 심성을 자극하여 현대에도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신화의 원래 의미를 정확히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래의 의미와 가치를 철저히 고증, 고찰하는 작업 위에 현대적인 재해석이 가해질 때 비로소 신화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새로운 미래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무속 신화를 동화화 하는 작업에 있어서도 우선 무(巫)의 세계관과 서사 무가의 예술성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할 필요<sup>41)</sup>가 있다고 본다. 나아가 신화를 변용한 동화가 어린이 독자들의 내면을 억압하는 기제가 아닌 자유와 상상력을 북돋고 자율적으로 사고하게 하는 해방의 기제<sup>42)</sup>가 될 수 있도록 보다 섬세하고 다각적인 고찰이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종래의 고정된 동화관, 어린이관이나 근대적 인식으로 신화를 재단할 것이 아니라 보다 깊이 있는 연구와 열린 마음으로 신화를 대할 때 비로소 근대와 근대 아동문학을 극복하고 확장시키는 새로운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그 때 비로소 신화의 동화화 작업은 과거 유산에 대한 정보 전달의 되풀이에 그치지 않고 풍성하고 창조적인 의미로 다가올 것으로 기대한다. 본고에서는 그러한 문제의식을 단초로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예술 장르에서 현대적 변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원천강본풀이를 고찰해보았다.

한편 향후 원천강본풀이의 연구에 있어서는 몇 가지 과제가 이루어져

40) 오세정, 『설화와 상상력』, 제이앤씨, 2008, 241~317쪽.

41) 김환희, 「바리공주 이야기 속의 전통과 현대」, 『동화와 번역』 2집, 2001, 37쪽.

42) 위 논문, 71쪽.

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원천강본풀이의 채록본이 유일한 점은 본격적 연구의 장애물로 여겨지므로 향후 현장 조사를 통한 새로운 채록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원천강본풀이는 제주도 특수본풀이 중 하나이고 초공본풀이, 세경본풀이에 ‘원천강’이 나오는 것으로 볼 때 원천강본풀이와 다른 본풀이들간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 역시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 연꽃과 야광주 등의 신화적, 제의적 상징을 다른 설화와 신화와의 폭넓은 비교 연구를 통해 심도 있게 고찰할 때 원천강본풀이의 무속신화적인 면모가 더욱 드러나고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주제어 : 원천강본풀이, 제주도 특수본풀이, 신화의 동화화, 애니메이션 『오늘이』, 신화의 현대적 변용.



## 참고문헌

### 1. 1차 자료

아카마쓰 지쥬(赤松智城)·아키바 다카시(秋葉隆), 『조선 무속의 연구』, 동문선, 1991.

『계절을 여는 아이, 오늘이』, 초록인, 교학사, 2005.

『사계절의 신 오늘이』, 유영소, 한겨레아이들, 2009.

그림책 『오늘이』, 서정오 글, 조수진 그림, 봄봄, 2007.

애니메이션 『오늘이』, 이성강 감독, 2003.

애니메이션 그림책 『오늘이』, 이성강, 문공사, 2004.

### 2. 단행본 및 사전

『한국문화상징사전』, 두산동아, 199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정신문화연구원, 1991.

이수자, 『제주도 무속을 통해서 본 큰굿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 집문당, 2004.

김승혜·김성례, 『그리스도교와 무교』, 바오로딸, 1998.

김환희, 『옛이야기의 발견』, 우리교육, 2007.

서정오, 『옛이야기 들려주기』, 보리, 1995.

신동훈, 『살아있는 우리 신화』, 한겨레신문사, 2004.

오세정, 『설화와 상상력』, 제이앤씨, 2008.

조희용, 『한국설화의 원형적 연구』, 한국연구원, 1983.

\_\_\_\_\_, 『한국설화의 유형』, 일조각, 1996.

\_\_\_\_\_, 『설화학강요』, 집문사, 1989.

진성기, 『남국의 전설』, 일지사, 1974.

진은진, 『여성탐색담의 서사적 전통 연구』, 보고서, 2008.

현용준,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_\_\_\_\_,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2005.

### 3. 논문

강권용, 「제주도 <특수본풀이> 연구-원천강본풀이, 세민황제본풀이, 허궁애기본풀이를 중심으로」, 경기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1.

김왕식, 「<구복여행담> 연구 - 공간이동 상황과 서사무가와와의 대비를 중심으로-」, 동국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8. 김남정, 「<구복여행> 설화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1998.

김환희, 「바리공주 이야기 속의 전통과 현대」, 『동화와 번역』 2집, 2001.

배도식, 「구복여행 설화의 구조와 의미」, 『국어국문학』 22권, 2003.

이수자, 「무속신화 원천강본풀이의 신화적 의미와 위상」, 『남도 민속학의 진전』, 태학사, 1998.

정재민, 「차복설화의 구조와 복에 관한 인식」, 『구비문학연구』 4집, 1997.

황인덕, 「한·중·인 ‘구복여행’ 설화의 비교적 고찰」, 『비교민속학』 31집, 2006.

## Abstract

# A study of mythological characters and its modern adaptational aspects of Woncheongang bonpuri

Kim, Yoo-ji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mythological aspects of Woncheongang bonpuri and to examine its modern adaptation.

Woncheongang bonpuri was adapted from various genres such as fairy tales, picture books, and animation, mainly targeting children. The studies of Woncheongang bonpuri, however, are rarely conducted.

The reason is that it is hard to study Woncheongang bonpuri because Woncheongang bonpuri was transcribed into only two text documents and it is not used anymore in Korean shamanist rituals(gut), therefore, basic resources to study are not enough. Furthermore, since the two documents show totally different contexts but the same title, many researchers cast doubt on the authenticity of Woncheongang bonpuri as a bonpuri. Hyun Yong-jun considered Woncheongang bonpuri as a folk tale not a shamanist epic.

Owing to the lack of basic research on Woncheongang bonpuri, this study, first of all, analyzed whether Woncheongang bonpuri is a shamanist epic or not. Between two documents, Park Bong-chun's copy was considered as an original copy since it seems to have more plausibility. By comparing the narrative of Park's copy to that of Fortune Quest's folktale, I tried to verify that Woncheongang bonpuri is a shamanist epic not a folktale. Through this analysis, Woncheongang bonpuri's own mythological aspects were found out.

After describing mythological aspects of Woncheongang bonpuri, I have examined its modern adaptation in fairy tales, picture books, and

animation. It was conducted based on three books, such as fairy tales of Yoo Young-so and Choroakin, and Lee Sung-gang's animation.

In the fairly tales and the picture books, it was focused that whether mythological aspects of Woncheongang bonpuri are clearly shown and whether it is proper to target children. The mythological aspects of Woncheongang bonpuri were mostly deleted and the original narrative and the meaning were changed to educate children.

In the animation, it was examined that how Woncheongang bonpuri as a shamanist epic has been changed to adjust itself to modern people who live their lives regardless of shamanism. The animation substituted happiness which is an appropriate code for modern people for the original theme.

Key word : Woncheongang bonpuri, modern adaptation in fairy tales, animation

『O-Nu-Ri』

■ 논문접수일: 2010. 4. 30 / 심사기간: 2010. 5. 1-5. 31 / 게재확정일: 2010. 6. 1